

# 주호영, 이용호 선전 “당 건강성 높이는 데 도움”

### 安, 정치 선언 10주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강대국 역학구도에 생존 위협”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9일 경 제자였던 이용호 의원이 자신에 대한 추대 분위기에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데 대해 “당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소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직 의원 115명 가운데 106명이 투표에 참여, 61표를 얻은 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주 원내대표 임기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까지다.

양자 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열세라는 예상을 깨고 42표를 받아 선전했다. 이 의원의 선전에는 권 전 원내대표 등이 주도한 주 의원 추대 분위기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이어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것

과 원내대표를 2차례나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42표를 받은 데 대해 “저도 선전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원내대표를) 두번째 맡는 데 대한 (우려)라든지 당이 건강하게 당의 목소리 제대로 내달라는 그런 뜻도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선 “우선 당이 안정돼야겠고 그 다음 의원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야겠다”면서 “외연 확장은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그 다음 청년 정치 참여, 빈부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장 정기국회 관련 현안은 압도적 다수인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윤리위에 추가 처분을 예고한 데 대해선 “그런 이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



황에 처해 있다”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걸 보아가면서 다시 당원, 의원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선 “국회는 다수당이 일반적으로 다수결로 문

제를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해와 자제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170석 의석을 갖고 밀어붙였던 결과는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더 차분해지고 냉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 한덕수, 野 김건희 특검법에 “여론조사 보고 결정 않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에서 어렵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냐”며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그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878억원 규모 예산으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에 대해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면서도 “당초 영빈관은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이 함께 쓰는 국가 자산으로 쓰려고 한 것인데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서 의원이 ‘대통령도 원래 이 예산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들도 말씀을 하시니깐 보고를 받은 것이고 그 보고를 받고 즉각 이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예산을 최고 통치자와 총리가 다 파악한 뒤에 결정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분명 즉각 보고를 받으시고 철회하라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대답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그 어느 예산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건전화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원이 정부가 노인 일자리 예산과 서민 공공주택 예산을 삭감했다고 질타하자 “일부만 지적하시가지고는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선욱기자

## 與, ‘이재명 의혹’ 총공세...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 시작”

### 권성동 “유력 정치인·기업·사법부 얽힌 아수라 카르텔”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제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와 쌍방울의 검은 커넥션이 날마다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작년 7월 적극적 거짓말을 운운하며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수억 원의 고문료를 챙겼다. 경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성남

지청의 박은정 검사는 이를 몽개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 기업, 사법부가 얽혀있는 아수라 카르텔”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역량을 저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시행령을 흔들고 감사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발아래 두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범치주의의 위기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라며 “이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나라는 권력자와 범죄자의 카르텔이 국가를 지배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의원이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이 지나치다”며 “한 조직, 한 정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불변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인천 계양을 보결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당 대표를 두고 마치 탄압 받는 피해자나, 신성불가침 치외법권 영역인 것처럼 현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맹목적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은 언제 쟁기냐”라고 지적했다.

정적식 의원이 가세했다. 정 의원은 “오늘부터 나올 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이 대표 관련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비리 사건, 범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 상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쌍방울 그룹 실소유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호화 도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며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한 만큼

수사 기밀이 유출되며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송환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행 비대위원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김 비대위원은 영빈관 신축 논란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만 쓰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며 대한민국 국격을 바로 세우고 그 나라의 문화의 총결산이기도 하다”며 “이는 분명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위한 야당의 공세이자 몰타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ICT미디어 진흥특별위원회 구성 ▲태양광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ICT미디어특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에 공정 미디어, 포털미디어 진흥에 관한 소위를 두기로 하며 기한을 1년 연장해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태양광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위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박성중 의원이 선임됐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